

# 産卵率 急落 복합적

## 病因일지도.

- 편 집 부 -

3월 중순경 부터 오랜 동면에 들어 갔던 계란가격이 새 봄과 함께 서서히 회복, 상승하여 그간의 적자를 메워주려나 하고 큰 기대에 부풀던 우리 업계에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함께 찾아와 괴롭히고 있다.

찾아온 불청객의 주요 증상을 보면 산란계와 종계가 80~90%의 산란에서 갑자기 40~50%로 산란율이 격감하며 계분이 묽어지고 벼슬끝이 파랗게 쇠퇴하다 약 1개월 지나면 다시 회복되며 이 기간동안 약간의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 계통의 약을 투약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이 기간동안 폐사가 늘거나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사료의 품질이나 각종 질병을 생각하다보면 어느덧 1개월이 되어 회복되므로서 사료를 잘 만들어 주어 회복된 것으로 알거나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므로 마이코프라스마균 증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여보고 낮지 않으면 뉴캐슬이 가볍게 다녀갔나 하고 생각하는 동안 약속된 한달이 되어 회복하곤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근교는 물론 강화, 충남, 북을 비롯한 거의 전국에 걸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 닭의 품종은 모든 닭(백색, 유색, 산란계, 육용계)에 오며 많은 수의 종계장이 쉬쉬하고 지나는 수가 많은 것 같다

각 계통별 협의회, 사료회사 등에서는 마이코프라스마, 뉴캐슬, A.E, 동일것이라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I.B, 아데노 바이러스균증 감보로병 등 우리에게 생소한 병명까지로 추측진단을 하고있어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연 이런 증상은 예방이 불가능 한것인지? 이제 양계는 다만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며 해야 하는지? 양계업자는 불안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종계장의 경우는 비참하다 하겠다.

× × ×

여기에서 몇가지 발생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화성군의 4,750수 산란계 (백색산란계)의 예, 1977년 8월 15일 부화으로 78년 2월 13일이 26주이다 이때 산란율은 82%이었다.

그림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 27일 89%에서 10일 만에 50.4%까지 떨어졌으며 5월 22일 현재 53%에서 헤매고 있다. 사료 섭취량의 경우 평소 125-128gr (일일 1수) 섭취하던 것이 4월 27일 10gr 5월 6일 57gr 5월 22일 102gr이었다.

계분은 4월 28일부터 묽어지기 시작하여 5월 6일경에는 녹색으로 흐린 물똥으로 변하였으며 5월 12일 부터 변의 색이나 모양이 정상에 가까워 졌다.

벼슬끝은 파랗게 죽다가 5월 10일 부터 회복 되었으며 난각이 형성되지 않는 알

그림 1 화성군의 K 양계장의 경우



이 4,750수에서 35개 정도 나오다 5월 13일 부터는 4 - 5개로 감소 되었다. 이 기간 중 폐사는 1주에 5 - 6수 월간 폐사율은 0.9%로 폐사율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이 기간중 호흡기 증상이 약하게 있었으며 시판 되고있는 유명한 약제를 투약 하였으나 별로 반응이 없었고 5월 15일 경부터 호흡기 증상은 회복 되었다

다음예로(예 2) 경기도 용인 지역의 2,000수 규모의 부로일러 종계가 비참하게 당한 예를 본다.

이 경우는 종계 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컷고 부로일러 사육자에 까지 그 피해는 확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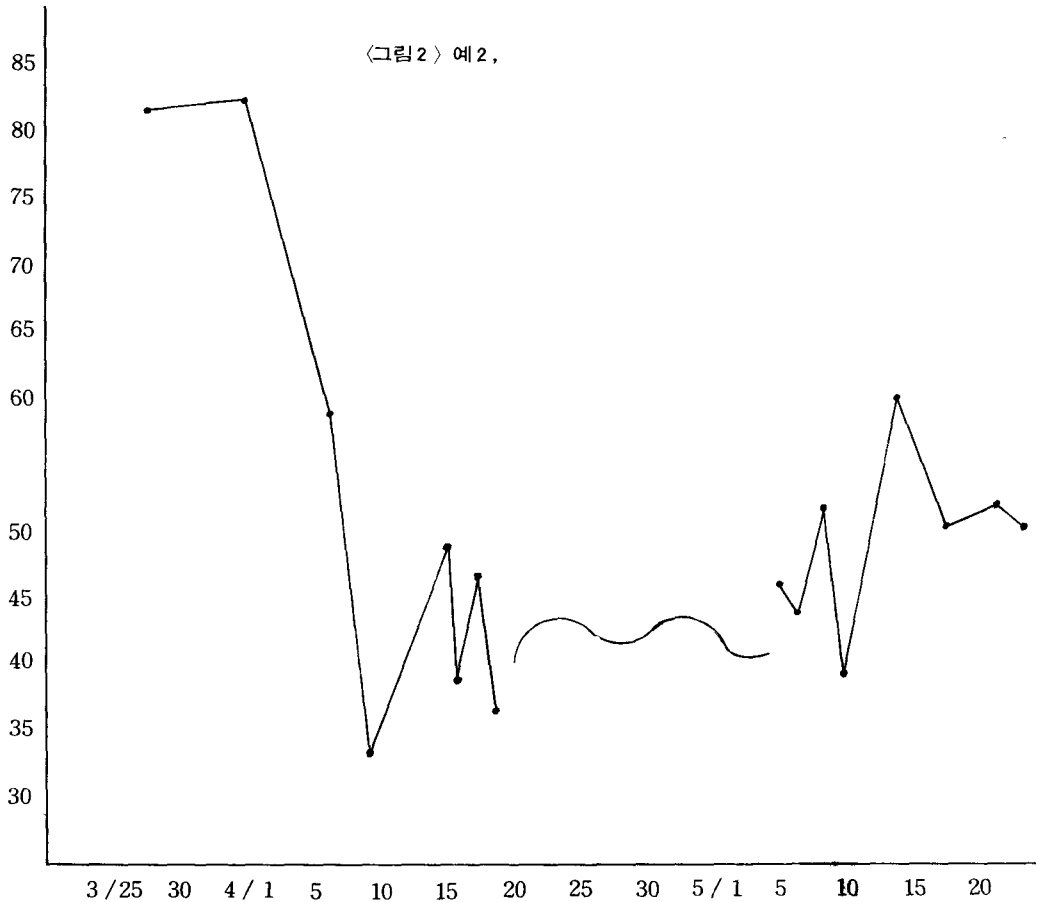
이 경우 사료 섭취량은 정확히 조사 되지 않았으나 증상은 예 1과 흡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5월 20일 까지 50% 선에 머물고 있다.

다음 예 3과 4는 산란기록을 철저히 하는 모범 채란 양계 농가로 이 양계장에서 직접 기록한 산란곡선을 소개 코저한다. 마치 과거 우리가 제 뇌척수염(A. E)에서 보였던 산란곡선과 아주 흡사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야 할것은 지난 3 - 4년간 국내 3개 동물약품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A, E 백신은 전체종계의 적은부분 밖에 안되어 일반 실용계의 A. E에 대한 면역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채란용 병아리도 A. E 백신을 접종하는데 국내 부화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계에게조차도 접종을 하지않아 A. E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증대 되어 갈 우



려가 있다.

최근 국내 사양가들로부터 제기되는 제반 문의중 상당수가 A.E로 추측되는 산란곡선의 특징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사양가 여러분은 안양의 가축위생연구소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조속히 받는 것이 필요 하겠다.

다음 예 5 (1,884수), 6 (1,778수), 7 (494수)은 유색 검용 중계로 서울 근교에

위치한 부화장의 예이다

예 5와 6은 77년 11월에 초산을 시작하였고 예 7은 12월 초산을 시작하였다. A.E 백신은 접종하지 않았고 산란율 격감시 하리 호흡기 증상등 모든것이 예 1, 2와 흡사하고 특별한 폐사나 뚜렷한 외부증상도 없는것등 예 1, 2와 비슷하다.

끝으로 일산 지역 J 중계장의 예를 하

그림 3 산란계 능력 기준 도표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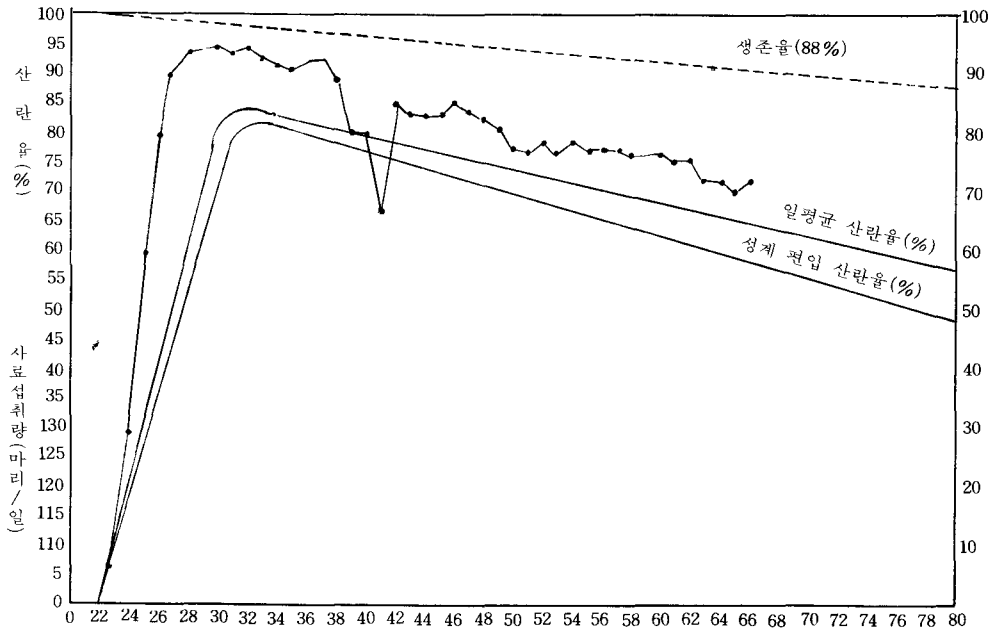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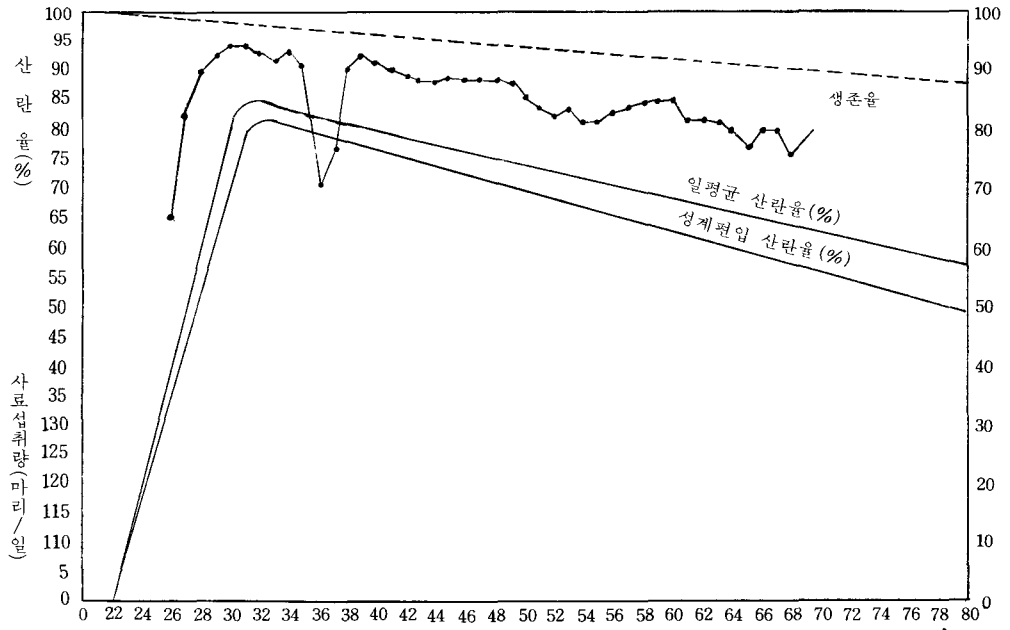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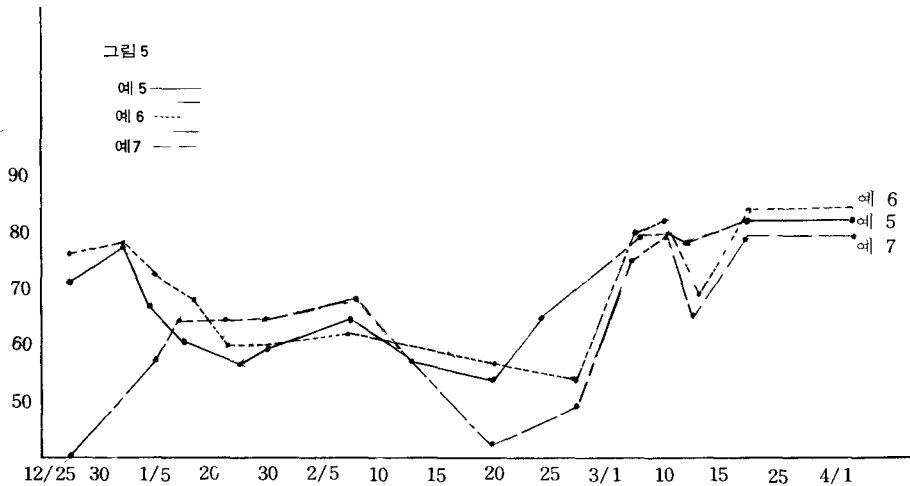


그림 4 산란계 능력 기준 도표 (B)





나 더들어본다. 종계장의 규모는 유색 검 용 1,300수 정도로 모든 증상은 앞의 예와 비슷하다. 산란율이 90%에 달하다가 10일 만에 65%로 격감하고, 격감한후 15일 88% 정도로 회복되는등 증상이 후에 비슷하다. 2월에 당한 예이다. 이밖에 청량리 대규모 채란업자인 60,000수 규모에서도 위와같은 산란율 산란곡선 증상으로 피해를 입은것은우리업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지방의 많은 종계장이 혼자 속을 앓고 있으며 피해액에 차이는 있으나 1개월간 약 50%의 산란감소로 볼때 3,000수 채란양계의 경우  $3,000수 \times 50\% \times 30원 = 4,500,000원$ 의 계산이 된다.

이런병의 피해는 왜 이리클가?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 A.E때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피해를 입은 종계장이나 부화장은 자기 사업에 나쁜 영향이 올까봐 쉬쉬하고 채란업자는 어린 병아리때는 그 원인을 부화장에, 닭이 커서는 사료공장에있다고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과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인것 같다.

물론 부화장, 사료공장, 동물약품회사로 부터 잘못되어 양축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가축위

생 연구소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의 양계 규모는 과거 10년간 3배로 확대 되는데 반하여 방역위생 기구는 10년전과 같은 수준에 있다.

물론 국가의 예산등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현재의 시설 장비 인원에 모든 우리의 방역 위생문제를 전담 해결하여 줄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최근 민간방역기구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것도 이런데 원인이 있다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역요원의 확보도 필요하겠으나 우선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최근의 피해는 원인이 빨리 규명되어 더이상의 양계인의 피해가 없어야 하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양계장은 속히 안양가축위생 연구소(안양 2-2151) 계역 연구실에 협조하여 원인이 무엇인가를 속히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되겠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가금 방역위생에 대한 기구 조직 인원등 근본적인 것부터 정부는 재검토하여 닭을 질병으로 부터 해방 시키고 안심하고 양계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